

사회·문화적 환경이 모자의 변천에 미친 영향 -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

입선희* · 김애련* · 김진구**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환경의 변화는 생활양식을 바꾸게 되고, 인간이 지닌 가치나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활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시대적 변화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재형성하고 개인과 집단의 행위 양식의 재조정까지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의복을 비롯한 다양한 장식의 행위들도 변화하여 왔다. 사회적 산물로서의 복식은 인간집단의 총체적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의 한가지에 불과하지만, 사회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습관, 사상, 기술 등의 가장 시각적인 표현 중의 하나인 것이다.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은 유럽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변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당시의 예술사조를 이루는 신고전주의 양식은 미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근대의 시대사조를 이루는 합리주의 및 자유주의는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고 그것에 의해 확립된 사상이지만, 그러한 사상의 원류는 18세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듯 유럽의 산업혁명과 근대화과정은 사회, 경제구조 전반에 일대변혁을 초래함과 동시에 인간관계와 행위양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이루게 된 19세기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복식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과 영국을 선두로 한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 기계화와 자본주의가 부르주아적 기반 위에서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되었다. 시민계급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복식의 유행은 대중성을 갖게 되었으며, 기능성과 단순성, 합리성을 갖춘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근대화 과정의 주체가 된 남성들의 복식에 비해 여성들의 복식은 여전히 장식적이고 심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남성들이 자신들이 이룩한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과시하는 역할을 여성들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들은 19세기의 사회문화적 변화가 남성복식과 여성복식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근거하여 복식의 한 품목인 남성과 여성의 모자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9세기 들어 남성 의복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모자 역시 기능성과 단순성, 합리성을 갖춘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시기 남성의 모자는 톱 햇(top hat), 캡(cap), 스트로 보우터(straw boater) 등의 단순한 형태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로젯(rosette)을 장식한 바이콘(bicorn)만이 유일하게 장식적일 뿐 눈에 띄는 장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 혁명 이후 남성모자는 정치성향

의 상징성을 대변하기도 했지만, 19세기 들어 그 전 세기들과 달라진 요인들 중에 우선적인 것은 남성모자의 장식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한 세기동안 남성의 모자는 모체의 높이, 차양의 넓이, 차양이 말려 올라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형태상의 큰 변화 없이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형식을 취하여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남성 정장에서 필수적인 품목이었던 톱 햇(top hat)은 도시의 상인, 지방의 대지주, 우편배달부, 푸줏간 주인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으로 착용하는 모자가 되었다. 이러한 대중성은 시민 중심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세기말에 스포츠가 더욱 확산되면서 모자에도 기능성과 편리성을 요구하게 되어, 밀집으로 만든 스트로 보우터(straw boater)나 캡(cap)이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여성의 모자는 본넷(bonnet)과 햇(hat)이 대표적이었는데, 본넷(bonnet)은 태양이나 먼지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였고, 이는 19세기 들어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복식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추어지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여겨진다.

햇(hat)은 이미 18세기 말부터 등장하였는데 승마의 인기와 함께 남성의복과 유사한 라이딩 재킷(riding jacket)과 함께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본넷(bonnet)과 햇(hat)은 여전히 깃털, 리본, 루슈 장식, 탭 장식, 보석, 거북껍질로 된 빗 등으로 풍성하게 장식되곤 하였다.

19세기말 여성들에게도 스포츠가 더욱 확산되어 남성 모자인 스트로 세일러 햇(straw sailor hat)이나 트weed 캡(tweed cap), 페도라(fedora) 등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젊은 여성들은 의복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장화라는 방식을 통해 여성 스스로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식의 변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나이든 여성들은 여전히 본넷(bonnet)을 착용하고 있었다.

19세기 모자의 변천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적 발전, 시민계급의 부상,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여성해방운동, 스포츠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남녀 모자의 변천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그 방식은 조금 달랐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사회적 지위의 과시를 여성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남성모자는 단순하고 비장식적인 형식을 취한 반면, 여성모자는 여전히 장식적이고 심미적인 형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스포츠가 확산되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젊은 여성들은 여성들만의 모자이던 본넷(bonnet)보다는 남성용 스타일의 모자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결국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켰고, 의식의 변화는 형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활동 및 신체적 활동에 참여했던 시기적 차이가 모자 변화의 시기적 차이에서도 나타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